

오늘 전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요

우리는 종종 가끔 만나는 지인이나 중요한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에 인색한 경우도 많은데요.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바로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 쉽고 작은 행동이 우리 모두의 내일을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정리. 편집실



부산신용지원단 강미숙 팀장

구상지원부 김민호 과장

매사에 자신감 넘치고 열정적이고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양희경 부지점장님 모습을 20년 이상 보았습니다. 사랑스러운 후배이자 동료이고 수려한 미모까지 겸비한 마음 따뜻한 분 덕분에 저 또한 계속 발전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감사했습니다.^^ 저는 구상지원부 김민호 과장님을 칭찬해 드립니다. 곧 민원이 접수될 것만 같은 것들, 너무 바쁠 때 드린 급한 질문들, 사소한 정책 등 때마다 진심으로 적극, 신속, 차분하게 대응해주셔서 항상 감사했고... 우리 회사에 섰던 영향력을 전파하는 이런 훌륭한 직원이 있어서 미래가 밝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듯하고 선한 마음 변치 마시고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구상지원부 김민호 과장

상품지원부 안소영 과장

과분한 말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를 하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는데, 팀장님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양한 관점을 배우게 되었고, 오히려 제가 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편하게 연락하면서 의견 교환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품지원부 안소영 과장님을 꼭 칭찬하고 싶습니다. 타 부서와 협의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안소영 과장님께서 매번 합리적이고 명확한 의사결정을 해주셨고, 그 덕분에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의 업무 처리 능력과 태도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께도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해 이렇게 칭찬을 전합니다!



상품지원부 안소영 과장

강남신용지원단 장범수 팀장

언제나 내·외부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심을 다하시는 김민호 과장님께 칭찬을 받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남신용지원단의 장범수 팀장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 시절, 옆에서 보았던 팀장님은 정확한 업무처리, 친절하고 고객 응대,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이 물어보면 항상 친절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팀장님 같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팀과 부서를 잘 이끌어주시며 회사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강남신용지원단 장범수 팀장

재무관리부 이경민 선임

안소영 과장님은 신입답지 않은 노련함으로 지점 생활을 워낙 잘하셔서 제가 큰 도움을 드린 것 같지도 않은데 오래전 인연을 좋게 기억해 주셔서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저는 재무관리부 이경민 선임님을 칭찬합니다. 얼마 전 사례가 없는 업무로 곤란을 겪은 일이 있었는데, 저의 다양한 질문 공세와 독촉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넘게 기간 동안 유관부서와 은행을 넘나들며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챙겨주신 덕에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내 일처럼 챙겨주는 동료 직원의 친절함과 적극적인 업무태도에 감명받아 이 자리를 빌려 칭찬 글을 전해드립니다.



재무관리부 이경민 선임

IT운영지원부 오용민 과장

장범수 팀장님 덕분에 오히려 제가 새로운 업무 사례를 배우게 되어 감사했는데,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회사 생활에 큰 원동력을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저는 알잘딱깔센의 표본인 IT운영지원부 오용민 과장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차세대추진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엄청난 업무량에도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해주시고, 업무 처리까지 깃벽하게 해주시는 항상 감사드리고 존경스러운 선배님이십니다~!



IT운영지원부 오용민 과장



매출채권부 목설빈 선임

이경민 선임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부탁드리는데, 민망하기도 하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출채권부 목설빈 선임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차세대 프로젝트 중간에 급하게 합류하시면서 적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대외/대내 협조 상황에서도 중간 다리 역할을 잘해주시면서 빠른 판단과 세심함을 통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는 새로운 부서에서 적응하시는 바쁜 상황에서도 A/S까지 챙겨주시니 칭찬 글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달해 드립니다.